

93.5.30

청소년들 남녀평등의식 높다

‘여자가 결혼하면 집안살림에 전념해야’ 찬성 33% 그쳐

55% “남편 뒷바라지 위해 아내 출세포기 나쁘다” 응답

삼성 청소년연구위 조사

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남녀평등 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삼성복지재단 청소년연구위원회가 지난 3월10일부터 10일 동안 전국의 10~19살 청소년 4천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청소년 의식 및 생활세계’ 조사결과 ‘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집안일을 적극 도와야 한다’ ‘능력이 같은 남녀는 동등하게 대접해야 한다’ 등의 문항에 각각 76.1%, 77.5%가 ‘그렇다’고 응답했다.

“능력 같으면 똑같이 대접”

‘아내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출세를 포기하는 것’에 대해서는 55.4%가 ‘나쁘다’고 생각하고 있었고, ‘남편보다 부인이 더 유명

해지는 것’ ‘데이트 할 때 여자가 돈 내는 것’에 대해서는 각각 68.5%, 62.2%가 ‘나쁠 것 없다’고 생각하고 있었다.

또한 ‘결혼한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 좋다’는 의견에 동의하는 청소년은 32.7%에 불과했으며, ‘부부간에 의견이 다를 때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’는 의견에도 15.5%만이 동의하는 등 남녀차별 의식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권력·돈 보다 만족감 중요

한편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·돈·명예·사회봉사보다 ‘자기 스스로의 만족’(64.8%)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해 기성세대와는 다른 인생관을 보여줬다.

달라진 인생관은 직업관에도 그

대로 나타나 예전에 인기있었던 정치인이 희망직업순위 20위권에 들지 못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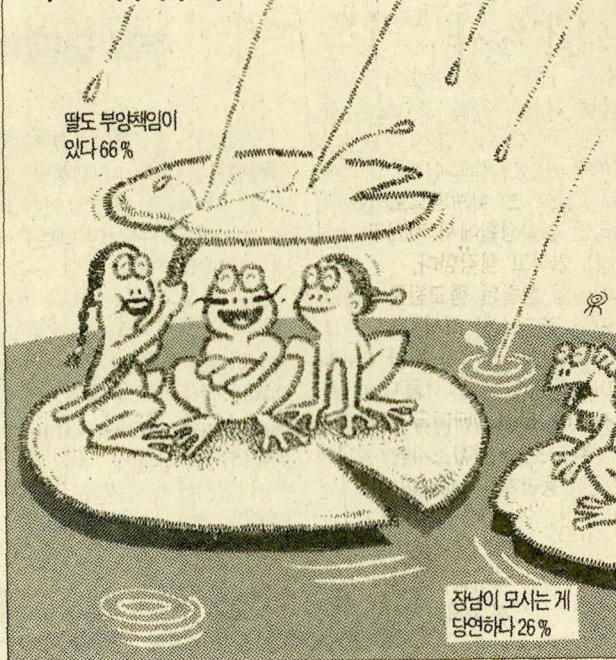
법조인(2.1%) 의사(6.6%) 등도 인기가 낮아진 반면, 전문기술인(11.3%) 회사원(7.7%) 예술가(4.9%) 디자이너(4.7%) 연예인(4.2%) 언론인(4.1%) 운동선수(3.3%) 등 자아실현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.

희망직업 ‘전문인’ 으뜸

한국교원대 권이종 교수, 고려대 김문조 교수가 실시한 이 조사 결과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‘한국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세계’에 관한 세미나(삼성복지재단 청소년연구위원회 주최)에서 발표된다.

■ 그림으로 본 생활뉴스

● 부모 모시기 의식조사



자료/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, 그림/김영훈 기자

딸도 노부모 ‘부양책임’ 있다 66%

부모 모시기에 대한 의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.

제일기획 부설 마케팅연구소가 최근 서울·부산 등 5개 도시에 사는 13~59살 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‘라이프 스타일’을 조사한 결과, ‘장남이 모시는 게 당연하다’는 사람은 26%에 불과한 반면 ‘딸도 노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다’가 66%나 됐다.